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18) ~26년 6월7일 주일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외워, 지식으로 가르쳐도 창조주 아버지의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한 가족삼음의 위대한 사건=아가페 사랑이야기를(=육아, 양육, 사랑일지)발견 **그 사랑을 붙이고 그 안에서 빠져 살지 못하면 영생과 관계 없다.** 성경에서아가페 사랑을 발견⇒경험으로 깨닫고(=양육)⇒내 생활의 열매로 사랑을 진행 완성해 감. 성경을 살의로 나타내야 할뿐이다. ⇒2천년전 나타난 입회성이 아닌 창세 전부터 시작됨의 결과다.⇒지금은 창세 전부터+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혀 내게로 진행중임 ⇒아가페 사랑의 오해?감정적, 인간적 사랑 아님. 진리를 기뻐함, 죄와 불의, 방종, 정과 욕심을 용납지 않는 아들을 죽이신 공의의 사랑 ~아가페 사랑?다시는 범죄 치말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 닮은, 마음이 변화된 새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새 계명으로 살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세상의 사회적약자(=가난한 자, 병든 자, 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1순위가 아닌 지체들 부터이다 ~선한 목적의 사랑이라도(=부모, 남녀, 친구, 교리를, 나라를, 교회를, 복음을)성경을 벗어난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이사야29장13.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 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만물의 주인**

에베소서1장⇒만물의 주인으로 공경함에 가장 중요한 것⇒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예수님을 닮은 한 가족으로 삼으심에 순종

3.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4.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심(=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 미리정하심) ~우리는 그분의 사랑속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5.하나님의 뜻은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우리 대신 죽게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6.놀라운 은총과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12.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사야43장 21.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1서4장8.~**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하나님께서는~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10.~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참사랑은~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사랑의 극치입니다.**11.~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이 사랑에 휘어잡혀 반응**

16.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이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

↳창세 전에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계획=육아, 양육일지의 사랑이야기 로마서8장 37.~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38.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 합니다.** 갈라디아6장14.~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이 십자가 때문에**나는 오래전에 이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로마서8장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않습니다 ↳=사랑의 극치=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 19.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2.동물이나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 내고 있다는 것을우리는압니다 =로마서1장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알려졌나니

에베소서2장4.공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5.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6.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보좌 우편=영광에 참여**

베드로전서1장3.~하나님께서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3장⇒우리를 향한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됨의 열매이다. 마땅, 당연함=의무며 특권이다. 12.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겸손하게 온유와인내로13.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14.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 주는 띠입니다. 15.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창세 전 한 가족 삼으시려는 계획(사랑에 쌓여있음)=그림자⇒2000년 전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랑의 나타남, 사랑의 확증, 사랑의 가르침, 참사랑=아가페 사랑, 사랑의 극치=절절,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쏟아부음, 큰 사랑⇒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창세 전 한 가족 삼으심의 계획을, 율법을 죽음과 부활로 확증 완성 하심.⇒새 계명을 명하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구원=영생=새로운 생명=새 생명=영원한 생명=한 가족 삼으심

빌립보3장 ↳로마8장17절 ~베드로전서1장1절 ~히브리12장2절 ~실체의 사랑으로 확증된 사랑⇒양육의 과정 이김⇒새 계명 순종 18.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19.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것을 대단한 것인양 자랑하는자들입니다.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20.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얼마만큼의 감흥과 기쁨과 감사로 생활에 나타내고 있는가? 열매는?**

아버지 사랑에 자녀로 그 사랑의 감격이 점점 멀어져 희미해감, 감정도 매말라 건조해져감. 세상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에 몰두해 감 로마서1장

6.로마에 사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참사랑=사랑의 극치 여러분들도 예수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17.~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나를 진실하게 의지하기 때문)** =아가페 사랑의 극치와 완성에 반응함 18.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 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19.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1.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22.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23.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인간이나 새, 짐승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25.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아멘=만물의 주인으로 섬김

28.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만물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음

29.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30.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지를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31.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며 동정심 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32.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 바꿔지 않음=회개하지 않음

2장 1.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4.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퍅해져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음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 우리와 한 가족으로 하늘에서 함께 누릴 영광 위한 아가페 사랑

21.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22.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23.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세상 사람에게 비방받을

29.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 이사야 29장 13.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 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 만물의 주인

◆ 예수님의 고난=십자가를 참으심은 나를 한 가족 삼기 위함이다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한 가족으로 누릴 영광을 생각하여 고난을 통한(=불시험, 믿음의 연단)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 사랑을 닮아가는 양육의 길을=새 사람됨을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한 가족 삼기 위한 사랑 ↳ =한 가족으로 우리와 함께 누릴 영광의 날

=로마서 8장 ↳ 예수님과 같은 한 가족이 되었으니

17.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동참

18.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심 =이사야 53장 ↳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5.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6.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놓으셨다

7.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이미 양처럼 입 한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4. ~우리는 그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함으로 생각하였다.

↳ 친 자식은 한 가족으로 양육해 주실 때 예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 예수님처럼 인내하라

↳ 양육? 불시험, 믿음의 연단, 사랑을 깨달음=고난=격려며, 친자의 증거 ↳ 징계=체적? 불순물 제거=정금판드심, 옛사람 ↳ 새사람 됨

5.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주께서 네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네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7.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8.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9. 비록 우리를 낳아 준 아버지가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 우리를 낳아 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11.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22.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 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23.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10절 ↔ 계시록 3장 14~20절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13. ~그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14.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 하늘나라, 영생, 한 가족으로 누릴 영광